

어두운 곳을 밝혀주는 빛과 같은 존재

# 손으로 보는 세상



무더운 날씨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1년 중 가장 더운 8월인데요.  
더운 계절인 “여름”을 점자로는 어떻게 나타낼까요?

“여름”은 점자로 이렇게 표현합니다.



### 점 자 일 램 표



읽기형 ① ④  
② ⑤  
③ ⑥

자음	ㄱ	ㄴ	ㄷ	ㄹ	ㅁ	ㅂ	ㅅ	ㅇ	ㅈ	ㅊ	ㅋ	ㅌ	ㅍ	ㅎ	된소리
	⠠	⠠	⠠	⠠	⠠	⠠	⠠	⠠	⠠	⠠	⠠	⠠	⠠	⠠	⠠
받침	ㄱ	ㄴ	ㄷ	ㄹ	ㅁ	ㅂ	ㅅ	ㅇ	ㅈ	ㅊ	ㅋ	ㅌ	ㅍ	ㅎ	
	⠠	⠠	⠠	⠠	⠠	⠠	⠠	⠠	⠠	⠠	⠠	⠠	⠠	⠠	
모음	ㅏ	ㅑ	ㅓ	ㅕ	ㅗ	ㅛ	ㅜ	ㅠ	ㅡ	ㅣ					
	⠠	⠠	⠠	⠠	⠠	⠠	⠠	⠠	⠠	⠠	⠠	⠠	⠠	⠠	⠠
약자	가	나	다	마	바	사	자	카	타	파	하	억	언	얼	연
	⠠	⠠	⠠	⠠	⠠	⠠	⠠	⠠	⠠	⠠	⠠	⠠	⠠	⠠	⠠
약어	그래서	그러나	그러면	그러므로	그런데	그리고	그리하여								
	⠠	⠠	⠠	⠠	⠠	⠠	⠠	⠠	⠠	⠠	⠠	⠠	⠠	⠠	⠠
숫자	수표	1	2	3	4	5	6	7	8	9	0				
	⠠	⠠	⠠	⠠	⠠	⠠	⠠	⠠	⠠	⠠	⠠	⠠	⠠	⠠	⠠
문장 부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영어	a	b	c	d	e	f	g	h	i	j	k	l	m	n	
	⠠	⠠	⠠	⠠	⠠	⠠	⠠	⠠	⠠	⠠	⠠	⠠	⠠	⠠	⠠
	o	p	q	r	s	t	u	v	w	x	y	z	영어시작	끝	
	⠠	⠠	⠠	⠠	⠠	⠠	⠠	⠠	⠠	⠠	⠠	⠠	⠠	⠠	⠠

'나, 다, 마, 바, 자, 카, 타, 파, 하' 약자 뒤에 모음이 이어질 때는 약자를 사용하지 않는다.

ㅅ, ㅈ, ㅊ, ㅍ 다음에 약자 영 이 올때는 '영'으로 바뀐다.

# C O N T E N T S



**점자로 말해요** | 여름 ..... 02

**테마기획** | 시각장애인을 위한 화면해설영화 '명량'을 위해 우리가 모였다! ..... 04

**우리복지관에서는** | 서울특별시립노원시각장애인복지관이 준공되었습니다!  
/ 재난극복훈련, 시각장애인도 필요해요! ..... 06

**뉴스앨범** | 점자명함 함께 만들어요,  
홍콩시각장애인연합회,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를 방문하다 ..... 08

**함께 사는 이야기** | 점역 · 교정사 자격시험 준비 /  
황은숙(시각장애 3급, 대구시 수성구) ..... 09

**2014 08**  
vol. 169



**인터뷰** | 화면해설작가, 성우로 활약 중인 김필진 씨를 만나대! ..... 10

**흰 지팡이 발자취** | 점역 · 교정사의 역사에 대해 알아보시다. .... 12

**포커스** | 시각장애인 전용 풋살구장 히딩크 드림필드 12호가 개장했습니다. .... 14

손으로보는세상 제20권 8호 통권 169호

발행일 2014년 7월 15일 발행처 서울시립노원시각장애인복지관

주 소 우)139-856 서울시 노원구 중계4동 우암에스타워 403호 전 화 02-950-0107 팩 스 02-934-8069 이메일 kbuhongbo@hanmail.net

홈페이지 www.nowonblind.or.kr 한글도메인 '시각장애인.kr',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kr' 디자인 · 제 작 디코라이징(02-542-5064)



영화 '명량'의 화면해설 및 더빙을 맡은 성우 탁원제, 윤기황, 유강진, 이상현, 유호한 님(왼쪽부터)

## 시각장애인을 위한 화면해설영화

# '명량'을 위해 우리가 모였다!



지난 8월 5일 서울영상미디어센터에는 내로라하는 성우 다섯 분이 모였습니다. 바로 시각장애인을 위한 화면해설영화 “명량”의 화면해설녹음에 성우 유강진, 탁원제, 윤기황, 유호한, 이상현 씨가 참여해주셨습니다.

우선 화면해설영화에 대해 알아보까요?  
 눈을 감고 텔레비전이나 영화를 본다고 상상해보세요. 소리로는 들리지만 설명이 없으면 이해가 되지 않는 장면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화면에 해설을 덧붙여 녹음한 영화를 화면해설영화라고 합니다.

노원시각장애인복지관에서는 매월 셋째 주를 장애인영화관람 주간으로 지정하여 최신 영화 1편을 화면해설영화로 제작하여 전국 24개 영화관에서 상영합니다. 이번 8월의 화면 해설영화는 최단기간에 관객 1200만 명을 기록한 영화 '명량'입니다.

'명량'의 화면해설은 성우 유강진 님께서 맡아주셨습니다. 성우 유강진 님은 웅장하고 위엄 있는 목소리로 유명하신데요. 대표적인 작품으로는 KBS 동물의 왕국 내레이션, 애니메이션 라이온 킹(무파사 역), 반지의 제왕(간달프 역) 등이 있습니다. 유강진 님은 "시각장애인을 위한 화면해설 녹음은 처음인데 시각장애인을 위해 봉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겠다."라며 소감을 밝혀주셨습니다.

또한 영화 '명량'은 이순신 장군과 싸우는 일본의 무사들도 등장하는데요. 일본어로 연기를 하기 때문에 이를 위한 더빙을 위해 성우 분들이 힘을 합쳐주셨습니다. 탁원제 님께서는 구루지마 역(배우 류승룡)을, 윤기황 님은 와키자키 역(배우 조진웅)을, 이상현 님은 가토 요시야키 역(배우 김강일)을, 유호한 님은 도도 다카도라 역(배우 김명곤)을 맡아주셨습니다.

더운 여름, 영화관을 찾는 관객이 많은데요. 영화를 보고 싶은 마음은 시각장애인도 똑같기 마련입니다. 이처럼 화면해설영화 제작을 위해 동참해주시는 성우 분들이 있기에 화면해설영화가 알차게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시각장애인을 위한 화면해설영화의 많은 제작을 응원해주세요.



▲ 영화 '명량'의 화면해설을 맡은 성우 유강진 님

## 서울특별시립노원시각장애인복지관이 준공되었습니다!

서울특별시립노원시각장애인복지관이 재건축 공사를 마치고 준공했습니다. 새로 재건축된 복지관은 지하1층, 지상4층으로 구성되는데요, 복지관에는 시각장애인을 위한 음악치료실, 기초재활실, 화면해설스튜디오, 녹음부스 등 다양한 시설이 마련되었습니다.

서울특별시립노원시각장애인복지관은 2011년에 실시한 건축물 정밀안전진단 결과 건축물의 안전 확보를 위해 기존 건축물 철거 후 재건축이 결정되었습니다. 복지관 위치는 기존 그대로 서울시 노원구 덕릉로 70가 길입니다.

복지관은 시각장애인이 실질적으로 이용하기 쉽도록 동선을 고려하여 설계했으며 보행 및 차량의 동선을 구분하여 이용자들이 안전하게 시설물을 사용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또한 장애인, 고령자, 임산부 등이 시설물에 접근하거나 이동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무장애 공간으로 설계되어 1등급 예비인증 최우수 등급을 받았습니다. 개관식은 9월 중에 개최될 예정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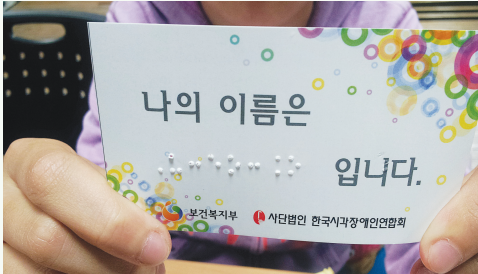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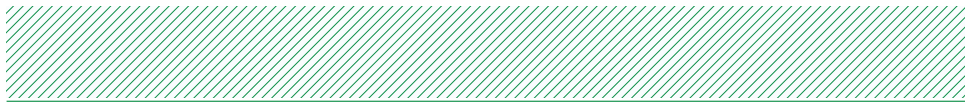
# 재난극복훈련, 시각장애인도 필요해요!

세월호 참사 사건 이후 재난사고 시 어떻게 대피해야하는지 재난극복훈련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습니다. 특히 각종 재난재해 등 위기 상황이 되면 장애인은 장애의 특성상 대처가 어려운데요.

이처럼 재난재해가 생겼을 경우 시각장애인의 재난극복을 위한 재난극복훈련이 실시되었습니다. 안전 행정부의 후원으로 진행되는 재난극복훈련은 일회성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올해에 여러 번에 걸쳐 시행 되는데요, 지난 8월 8일에는 시각장애인 약 20명과 함께 서울시민안전체험관을 찾아 재난극복훈련을 실시했습니다.

서울시민안전체험관에서 지진체험장, 풍수해체험장, 연기피난체험장, 소화기체험장 등 다양한 유형의 재난대피 극복훈련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에서는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지하철, 철도 등에서의 재난대피훈련을 실시할 계획이며 시각장애인을 위한 재난 안전 매뉴얼도 제작하여 보급 할 계획입니다.





### 점자명함 함께 만들어요!

지난 7월 25일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는 손기정문화체육센터 정보도서관에서 점자명함·이름깎기 프로그램을 실시했습니다. 도서관을 이용하는 어린이들이 자신의 이름을 점자로 새긴 명함을 만들었는데요, 어린이들이 명함에 들어가길 원했던 이름, 문구 등을 점자로 출력하여 전달했습니다.

또한 점자명함 만들기뿐만 아니라 점자 촉각교재, 점자책, 점자 타자기 등을 활용해서 도서관 이용자들이 점자와 가까워 질 수 있는 기회를 가졌습니다. 도서관을 이용하는 주민들이 점자를 직접 배우는 기회를 통해 시각장애인에 대한 관심을 높일 수 있었습니다.



### 홍콩시각장애인연합회,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를 방문하다.

지난 7월 29일 홍콩시각장애인연합회의 시각장애청소년들이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를 방문했습니다. 홍콩 시각장애청소년들은 한국의 시각장애인의 현황에 대해 설명을 들었는데요, 특히 시각장애인의 직업재활과 시각장애인의 음악에 대한 설명이 진행되었습니다.

서울특별시립노원시각장애인복지관 직업재활팀의 홍은녀 팀장님과 시각장애인 클라리넷 연주자 이상재 교수님이 강연을 해주셨으며 이에 홍콩 시각장애청소년들은 적극적으로 질문을 하는 등 유익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 점역·교정사 자격시험 준비

황은숙 (시각장애 3급 / 대구시 수성구)



2014년 4월에 점역·교정사 자격시험 공고를 들었다. 나는 작년에 점자출판 업무를 맡았는데 그동안 스쳐지나간 점자를 이제는 더 이상 외면할 수 없었다. 게다가 나는 3급 시각장애인이며 시각이 점점 나빠지고 있기에 이제는 점자와 정면돌파 할 수 밖에 없었다.

작년 2월에 1주일 동안 점자를 배울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서 멀리 여겼던 점자와 조금은 친해질 수 있었다. 이후 일하다가 모르는 것이 나오면 관련 책을 찾아보거나 점역을 잘 아는 분들에게 물어서 업무를 해나 가곤 했다. 작년 실력으로는 점역·교정사 자격시험을 보는 것은 응시비와 차비만 버리는 것이라 판단되어 아예 응시하지 않았다. 그러나 올해는 떨어지더라도 시험 유형이라도 알 수 있도록 시험에 시도는 해보아야 되겠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독학을 하려고 했더니 범위가 방대했다. 시험공고 이후 마침 복지관에서 시험 준비 과정반이 신설된 것을 알게 됐다. 복지관의 배려로 서울에서 5일 동안 교육에 참여할 수 있었다. 원래 그 반은 시험응시 1개월 전에 전 과정을 복습하는 의도로 열린 반인데 학습자 10여 명 중 2~3명만 그 의도에 맞는 학생이고 나머지는 나처럼 점자를 알아가는 과정의 사람들로 보였다. 처음 참여하는 준비반이지만 이번 기회로 3급 국어반 통과를 간절히 바랬던 나는 서울에서 내려온 이후 남은 한 달을 “국어 3급 과정” 시험 준비에 올인했다. 밥 먹고, 자고, 업무 외 시간은 틈틈이 책을 보았고 눈이 피곤할 때는 점자 타자연습 겸 드라마 대사 등을 점자단말기로 받아 치는 연습을 했다.

나는 내 실력을 알기에 컷라인 70점을 넘길 전략을 세웠다. 점역·교정사 시험 국어 과목은 3가지 유형으로 구성되어 있다. 첫 번째 유형은 점자 상식으로 4점씩 5문제가 나와서 다 맞으면 20점이다. 두 번째 유형은 점역으로 A4 반장 정도의 분량이다. 총 20점인데 한 곳이라도 틀리면 2점씩 감점된다고 한다. 나로서는 두 번째 유형은 시간도 많이 걸리고 거의 100퍼센트를 입력해도 10개미만으로 틀릴 자신이 없어서 아예 포기하고 마지막에 시간되면 풀어볼 생각이었다. 세 번째 유형은 문장의 틀린 부분을 찾아서 맞게 고치는 것이었다. 총 30문항이며 1문제당 2점으로 다 맞으면 60점을 획득할 수 있었다. 그러니까 1번과 3번을 다 맞으면 80점이고, 10점 미만으로만 틀리면 합격이 되는 것이다. 고3 이래 최고로 열심히 공부했다. 한 번만 시도해 보고 다시는 치를 시험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다. 눈의 피로가 너무 많았고 힘도 들었다. 5월 15일 합격 발표일에 선거관련 업무로 바빠서 합격여부를 검색할 생각을 못하고 있을 때 동료가 합격을 알려주었다. 다행히 점수가 되어서 단번에 합격했나 보다. 기쁘면서도 사실인가 의심스러워서 어정쩡하게 있었다.

부족함이 많지만 점자공부를 더욱 열심히 하여 점자출판업무의 질을 높이고 다른 사람을 돕고 가르쳐 줄 수 있는 단계에 이르기까지 연습을 꾸준히 해야겠다. 먼저 하나님의 은혜요, 주변의 기도와 관심, 내 노력의 결과가 결실한 것 같아서 너무나 감사했다.

## 화면해설작가, 성우로 활약 중인 김필진 씨를 만나다!



화면해설작가와 성우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김필진 씨를 만나보았습니다. 여기서 화면해설작가란, 영상물을 시청하는 시각장애인의 이해를 돕기 위해 화면해설원고를 작성하는 직업을 말하는데요. 김필진 씨는 화면해설작가로 EBS 프로그램 ‘극한직업’, ‘성공! 인생 후반전’의 원고를 작성하고 있으며, 성우로서의 대표작으로는 ‘말괄량이 삐삐’(아니카 역), ‘방가방가 햄토리’(궁금이, 하늘이 역), ‘호빵맨’(크림팬더 역) 등이 있습니다.

무더위가 한창인 여름, 김필진 씨를 만났습니다. 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김필진 씨는 또렷하고 귀여움이 묻어나는 앳된 목소리로 인터뷰에 응해주셨는데요. 화면해설작가, 성우로 종횡무진 활동하고 있는 김필진 씨의 이야기를 함께 들어보시죠.

**Q** 화면해설작가와 성우로 활동하신다고 들었습니다. 어떻게 화면해설작가, 성우가 되셨는지 궁금한데요.

**A** 대학교 때 낭독봉사를 하게 되면서 인연이 이어졌습니다. 사실 연극영화과를 전공해서 마이크 앞에서 연습하는 기회를 갖기 위해 낭독봉사를 시작했는데 낭독봉사를 하면서 성우의 꿈을 키우게 됐습니다. 또 화면해설작가가 생긴 초반기에는 주로 성우들이 화면해설작가를 했습니다. 제가 초반기부터 화면해설작가를 한 것은 아니고 작년에 화면해설작가 교육을 받고 화면해설작가로 활동하게 되었습니다.

**Q** 대학교 때 낭독봉사가 계기가 되서 성우가 되셨으면 성우로 굉장히 오래 활동하신 것 같은데요.

**A** 맞아요. 1997년에 성우가 되었고 20여 년간 시각장애인을 위한 낭독을 해왔습니다. 지금은 성우로서 하는 일은 일반방송만 맡고 있고 시각장애인을 위한 활동은 화면해설작가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Q 화면해설 원고를 작성할 때 유의하는 점, 신경 쓰는 점이 있으신가요?**

**A** 최대한 듣는 소리에 집중합니다. 즉, 소리는 나는데 보지 않으면 무엇인지 모르는 것을 찾으려고 노력해요. 그리고 원고를 작성할 때 단어, 어순에 신경을 쓰죠. 정확한 우리말로 단어 선택을 하고, 시각장애인이 가장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어순을 바르게 쓰려고 합니다. 멋을 부리려고 주어를 뒤로 도치하는 식의 시도도 해봤지만 결국 가장 이해하기 쉬운 화면해설이 좋은 해설이라고 생각하기에 바른 문장을 쓰기 위해 노력합니다.

**Q 화면해설작가, 성우로 일하시면서 보람을 느꼈거나, 인상 깊었던 적이 있나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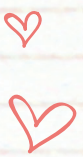
**A** 맨 처음 낭독봉사를 할 때 소리잡지의 추리소설을 낭독했습니다. 그 때 인물별로 연기를 해서 낭독을 했는데 시각장애인 독자 분들의 피드백이 있어서 기뻐요. 시각장애인 독자로부터 팬레터가 온 적도 있었고요. 또 소리 없이 조용히 활동을 했다고 생각했는데 시각장애인을 위해 활동들을 해온 것을 알고 인터넷에 글을 써주시는 분들이 종종 계셨어요. 그런 글들을 보면서 앞으로 더 열심히 해야겠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Q 그러면 반대로 화면해설작가로 일하시면서 어렵거나 힘든 점은 없으셨나요?**

**A** 사실 성우만 할 때는 화면해설작가가 쉬운 줄 알았어요. 막상 화면해설작가로 원고를 쓰다 보니 어려운 점이 참 많더라고요. 방송에서 소리가 비는 짧은 타이밍에 화면을 설명해야 하는데 방송 소리가 비는 시간은 정해져있고 설명해야 할 내용은 많다 보니 어려운 점이 많았습니다. 처음에는 영상을 틀어놓고 듣기만 하면서 이해가 안 되는 화면들을 확인하고요. 그리고 다시 영상화면을 보면서 해설이 들어갈 수 있는 시간을 확인합니다. 그 다음에는 화면과 대본을 함께 보면서 원고를 작성하고요. 그렇다보니 30분 분량의 방송의 화면해설원고를 쓰는데 대략 8시간 정도 소요됩니다.

**Q 마지막으로 독자 분들께 한 마디 부탁드립니다.**

**A** 시각장애인을 위한 화면해설이 들어간 화면해설영화, 화면해설방송이 많아졌지만 아직 화면해설영화를 보시는 시각장애인 분들이 적은 편이라고 들었습니다. 또한 시각장애인을 위한 라디오 방송 '우리는 한 가족'도 시각장애인을 위한 방송으로 시각장애인을 위한 코너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청취율이 낮은 편이라고 들었고요. 많은 분들이 화면해설 영화와 라디오 '우리는 한 가족' 프로그램을 많이 사랑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점역 · 교정사의 역사에 대해 알아보시다.

매년 4월과 10월에는 점역 · 교정사 시험이 진행됩니다. 점역 · 교정사는 시각장애인이 촉각을 이용하여 도서를 읽을 수 있도록 목자(일반활자)를 점자로 번역 · 교정하여 점자도서, 점자인쇄물, 전자점자파일을 제작합니다. 시험일이 되면 점역 · 교정사를 꿈꾸는 많은 사람들이 수험장을 채웁니다. 시각장애 여부를 막론하고 많은 사람들이 점역 · 교정사 시험에 응시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점역 · 교정사 시험은 어떻게 진행되어 왔을까요? 또한 다른 나라에서는 점역 · 교정사 시험을 어떻게 실시할까요?

우리나라에서는 점역 · 교정사 민간자격의 관리 운영에 관한 규정에 근거하여 점역 · 교정사 자격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점역 · 교정사는 장애인복지법 제71조가 명시하고 있는 장애인 복지 전문인력으로 1998년부터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가 민간자격을 부여하기 위해 시험을 실시하였습니다. 하지만 점역 · 교정사 자격제도가 시행되기 오래전부터 실질적인 점역 · 교정사들이 활동하고 있었습니다. 이들은 주로 시각장애관련 기관 직원이거나 자원봉사자들이었는데요. 1980년에는 서울시각장애인복지관의 전신인 연합세계선교회의 점역봉사실에서 대학 입시를 준비하던 고등학생, 전공도서를 필요로 하던 대학생들에게 점자도서를 제공해주었습니다. 또한 시슴회같은 봉사단체에서 점자도서를 제작하여 제공했습니다.

현재 점역 · 교정사는 1급, 2급, 3급으로 분류되며 3급은 국어과목에 합격한 사람입니다. 3급 소지자가 영어, 수학/과학(컴퓨터), 음악 중 1개 과목에 합격하면 2급, 2개 과목에 합격하면 1급이 됩니다. 다만 2개 과목 중 반드시 영어과목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다른 나라에서는 점역·교정사 시험이 어떻게 진행될까요? 미국에서는 점역사와 교정사 자격을 분리하여 인증하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1931년부터 미국의회도서관 산하에 설치된 국립 시각장애인 및 지체장애인 도서관에서 점자도서 및 녹음도서를 제작하며 점역사와 교정사 시험을 진행했습니다.

이후 2006년에 이르러 국립 시각장애인 및 지체장애인도서관에서는 그동안 관리해오던 점역사 및 교정사 자격과정을 미국시각장애인연맹에 위탁합니다. 미국의 점역사, 교정사 양성과정에서 특이한 점은 응시자들을 모아 시험을 실시하여 합격과 불합격을 결정하는 방식이 아니라 자격취득을 희망하는 희망자의 개인별 과제를 받고 이를 피드백 하는 과정을 반복해서 점역사 또는 교정사의 자격을 갖출 수 있는 교육과정을 운영한다는 점입니다. 미국의 경우 점역사는 문학, 수학, 음악 세 과정으로 세분화되어 있고 교정사는 문학, 수학 두 과정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과목에 상관없이 점역사와 교정사는 고등학교 졸업 이상의 학력을 기본요건으로 하며 미국 시민권자이거나 영주권자여야 합니다.

그렇다면 일본에서는 점역·교정사 시험을 어떻게 진행할까요? 일본에서는 점역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전문가를 점자기능사라고 부르는데요. 점자기능사는 2000년부터 후생노동성장관이 인정하는 자격입니다. 하지만 점자기능사 자격취득자는 2010년 조사결과 약 200명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이처럼 점자기능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의 수는 적지만 이에 비해 일본에서는 약 8,000명의 자원봉사자들이 시각장애인들에게 각종 점자자료를 점역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점자기능사 시험은 학과시험과 실기시험으로 구분되며 실기시험은 점자기능시험과 교정시험으로 다시 구분됩니다. 학과시험은 장애인복지, 시각장애인복지, 시각장애아교육, 일본어 문법 및 독해 등으로 이뤄져 해당내용에 대한 시험을 치러야 합니다. 시험문제는 객관식이며 점자로 출제됩니다. 답지는 정안인의 경우 목자로, 시각장애인의 경우 점자로 작성하면 됩니다. 실기시험은 일본점자표기법을 기준으로 일본어 점자표기와 관련된 점역 및 교정 기능을 평가합니다. 또한 실기시험에서 전자기기는 아직까지 허용되고 있지 않다고 하는데요. 우리나라 점역·교정사 시험에 컴퓨터, 점자정보단말기가 허용되는 점과는 상반되는 점입니다.

이처럼 각국에서는 시각장애인을 위해 자체적으로 점역·교정사를 양성하고 있습니다. 나라별로 상이한 특징이 있지만 시각장애인을 위해 점역을 하고자 하는 응시자들의 진심은 똑같겠죠?.

- 「점역·교정사 제도개선방안 (김영일, 2010년)」 참고



시각장애인 전용 풋살구장

# 히딩크 드림필드 12호가 개장했습니다!

지난 7월 24일 히딩크 드림필드 12호가 서울시 도봉구에 소재한 덕성여자대학교에서 개장했습니다.

히딩크 드림필드는 거스 히딩크 재단이 시각장애인을 위해 만든 시각장애인전용 풋살 구장으로, 2007년 성심맹아원에 1호 드림필드를 건립한 이후 전국 곳곳에 개장됐는데요. 이번에 덕성여자대학교에 설립된 12호 드림필드는 서울에는 처음으로 생긴 것으로 서울에 있는 시각장애학생들이 드림필드에서 운동을 함으로써 협동심, 체력 등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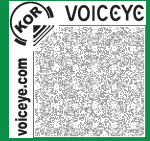


드림필드 개장을 맞아 개최된 개장식에는 거스 히딩크 감독, 이동진 도봉구청장, 대한축구협회 정몽준 명예회장, 대한축구협회 정몽규 회장, 덕성여자대학교 홍승용 총장 등이 참석하여 자리를 빛냈습니다. 또한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이병돈 회장이 개장식에 참석하였으며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는 향후 거스 히딩크 재단과 시각장애인의 스포츠를 위해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한편, 개장식 이후에 히딩크 드림필드 12호에서 한빛맹학교 시각장애학생들과 덕성여자대학교 축구동아리 학생들이 경기를 펼쳤는데요. 시각장애인이 어떻게 축구를 할 수 있을지 궁금하시죠? 시각장애인들이 원활하게 축구를 할 수 있도록 축구경기에서 방울이 들어 있는 공을 사용합니다. 즉, 공이 움직일 때마다 방울에서 소리가 나서 시각장애인들이 공의 위치를 파악할 수 있는 것이죠.

거스 히딩크 재단의 히딩크 드림필드가 전국 곳곳에 더 많이 개장해서 많은 시각장애인이 마음껏 축구를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 시각장애인에게 위험한 물건을 건네줄 때

뜨거운 차나 뜨거운 음식이 담겨져 있는 그릇을 시각장애인에게 건네줄 때 방향을 알려주는 것보다는 손을 살짝 손잡이에 닿게 해주시면 시각장애인이 스스로 판단해서 조심성 있게 다룰 수 있습니다. 또한 칼이나 공구류처럼 위험한 물건을 건네줄 때는 물건의 손잡이 쪽을 손에 닿게 해주면 됩니다.

### 시각장애인 인식개선 '장애체험스쿨' 프로그램 안내

노원시각장애인복지관에서 시각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해 단체인원을 대상으로 '장애체험스쿨' 프로그램을 실시합니다. '장애체험스쿨' 프로그램에서는 시각장애에 대한 교육 및 시각장애 체험을 진행합니다. 참가를 희망하시는 단체가 계신 곳으로 찾아가 프로그램을 진행하며 현재 초등학교, 중학교, 자원봉사센터, 도서관 등에서 장애 체험스쿨 프로그램을 참가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의 관심 부탁드립니다.

- 대 상** 초·중·고·대학생 및 사회인
- 내 용** 시각장애이해 및 에티켓교육, 한글점자이해, 시각장애체험, 여가·문화체험 등
- 진행장소** 신청기관을 방문 하여 진행
- 체험시간** 3시간 이내 (봉사활동 확인서 발급가능)
- 상담 및 접수** 02-935-9696 박승만

### 후원안내

노원시각장애인복지관은 전국 50만 시각장애인의 복리향상과 권리증진을 위해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는 시각 장애인 기관입니다. 후원자님의 정성된 사랑은 시각장애인들에게 소중히 쓰일 것이며 후원자님의 후원금은 소득세법 제34조, 법인세법 제18조에 의하여 종합소득세 감면 혜택이 주어집니다.

**지로번호** (7608162)

**계좌번호** (예금주: 노원시각장애인복지관)

- 국민은행 835-02-0114-768, 497801-96-200273
- 우리은행 1006-601-227253
- 하나은행 757-810001-08405
- 외환은행 170-22-00710-6